

출장보고서

전환기의 중국 경제와 한국의 대응

2015. 9.

 한국개발연구원

목 차

I. 출장 개요	3
II. 출장 일정	4
III. 주요 출장 내용	5
1. 상해 사회과학원과의 MOU 체결 및 정책 세미나 개최	5
2. 중국 경제 현황 및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	5
IV. 전환기의 중국 경제와 한국의 대응	6
1. 중국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6
2. 중국의 정책 대응	12
3. 전환기의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18
〈부록 1: 인터뷰 요약〉	21
1.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22
2. 아모레퍼시픽	25
3. 대우인터네셔널	27
4. KDI-SASS 정책세미나	29
①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Crises: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s	29
② Global Value Chain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Economy	33
5. 오로사/B.I.G 인터뷰	35
6. Raycop	36
7. 상해 미래에셋법인	37
〈부록 2: 상해 사회과학원과의 MOU〉	40

I. 출장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개방을 확대하는 등 급변
 - 중국은 그동안 세계 공장으로서 연평균 10%의 성장을 구가하다가 최근에는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어(new normal) 2015년에는 7%를 하회할 것으로 주요 세계경제예측 기관이 전망(예: IMF 6.8%)
 - 최근 대중 수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성과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경제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기치 아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주도하고 자본시장 개방도 확대
- 이에 따라 전환기의 중국 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
 - 현재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는 대표 공동과제로서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에 대해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주가 하락 등 중국 자본시장 변동 확대는 중국의 금융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출장목적

- 최근 중국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정책과 자유무역시험구 등 무역 정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수행중인 연구 및 향후 중국관련 연구과제 발굴에 기여

□ 활동 내역

- 금융 및 무역 중심지인 상하이로 방문하여 상해 사회과학원과 MOU 체결, 금융·무역·정책관련 세미나 실시, 자유무역시험구 탐방(사회과학원 지원) 및 현지 진출 업체 방문·간담회 실시
 - 상해 사회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시행 방안 등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발표해 주길 희망,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국내 의료산업의 진출이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아모레퍼시픽(화장품), 대우인터네셔널(무역) 미래에셋(금융) 등 현지 진출업체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

□ 출장자

-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이진수 교수, 남창우 부연구위원, 구자현 부연구위원, 정성훈 부연구위원, 김민호 부연구위원, 김수진 전문연구원

□ 기간: 2015년 8월 25일(화)~28일(금) (4일간)*

- * 당초 8월 25일(화)~27일(목)로 계획되었으나 귀국 항공편 남방항공의 귀책으로 27일 귀국 항공기 탑승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남방항공의 2인 1실 호텔 및 귀국편 항공비용 부담하에 1일 연장

II. 출장 일정

□ 출장일정

8.25(화)		8.26(수)		8.27(목)	
08:45	인천출발				
09:40	상해도착(푸동)	10:00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10:00	미래에셋 면담
11:00	호텔 체크인				
12:00	KOTRA 간담회	12:00	자유무역구 간담회	12:00	미래에셋 간담회
14:30	상해 사회과학원 도착	14:00	아모레 퍼시픽 면담	15:45	상해출발(푸동)
14:45	VIP 면담	15:00	이동		
15:00	MOU 체결 <세미나> ▪Prof. Lee, Jinsoo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y and its Lesson in Korea	16:00	대우 인터내셔널 면담		
17:30	▪Dr. Chung, Sunghoon - Global Value Chain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Economy ▪SASS 발표 2인 Q&A				
18:00	SASS 간담회	18:00	한상 기업인 간담회		
		20:00~	Wrap-up 미팅		

Ⅲ. 주요 출장 내용

1. 상해 사회과학원과의 MOU 체결 및 정책 세미나 개최

- SASS는 KDI와의 MOU 재체결이 정책 세미나, 공동 연구 등 양 기관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Yu Xinhui(于信匯) 상해 사회과학원 党委書記(SASS 서열 2위)는 VIP 면담 및 MOU 기념사에서 아시아 제일(U. Pen. Global Think Tank 자료 인용)의 Think-Tank인 KDI와 향후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언급
 - MOU 체결에 이어서 WANG Zhen 부원장 사회로 금융정책 및 무역정책과 관련한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정책세미나 개최
 - KDI는 이진수 교수 및 정성훈 박사가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y and its Lesson in Korea」 과 「Global Value Chain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Economy」 라는 주제로 발표
 - SASS에서는 ZHOU Yu 및 SHEN Yuliang 교수가 「Regional Expansion Path of RMB Internationalization」 및 「Functional Orientation of FTZ and Trade Facilitation Promotion with the Consideration of Global Value Chain」 발표
 - SASS는 금융·외환자유화와 GVC 참여에 대한 한국의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 표명

2. 중국 경제 현황 및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

- SASS 경제전문가 및 한국 기업인 면담을 통해 전환기에 직면한 중국경제의 실상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
 - 주요 수출주력 업종의 경우 중국과의 가격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중요
 -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주요 제조업 저부가치 제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거의 불가능
 - 현지화를 위해서는 국내 경영진이 10년 이상의 선행투자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하며, 마케팅 등 현지전문가 영입 및 신뢰가 중요

IV. 전환기의 중국경제와 한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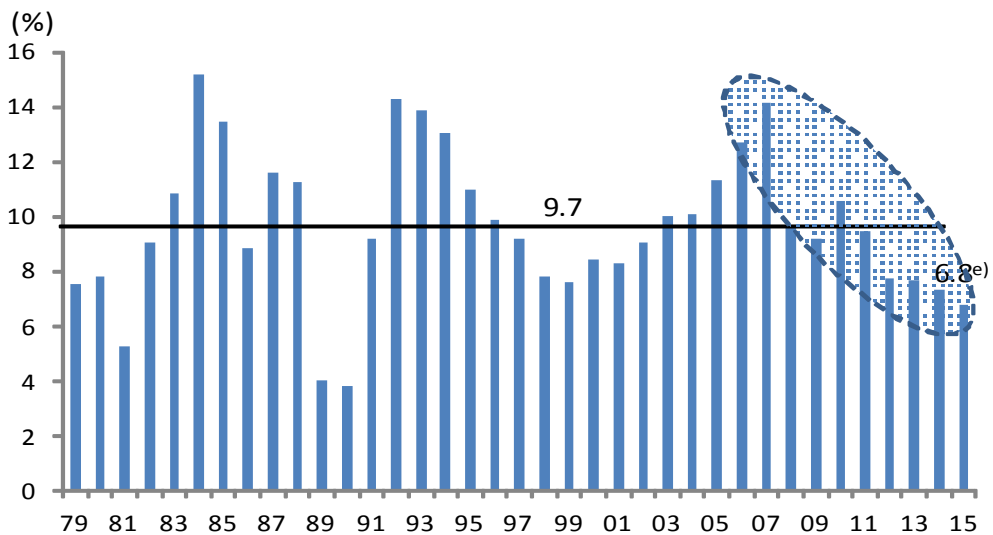
1. 중국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가. 경제현황

① 경제성장을 둔화

- 1979년 개방이후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
- 1979~2014년중 평균 9.7%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2007년(14%) 이후 크게 둔화되어 금년에는 목표치인 7%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
- IMF 등 세계 주요전망 기관은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8%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5%대 미만의 비관적 예측도 대두

[그림1]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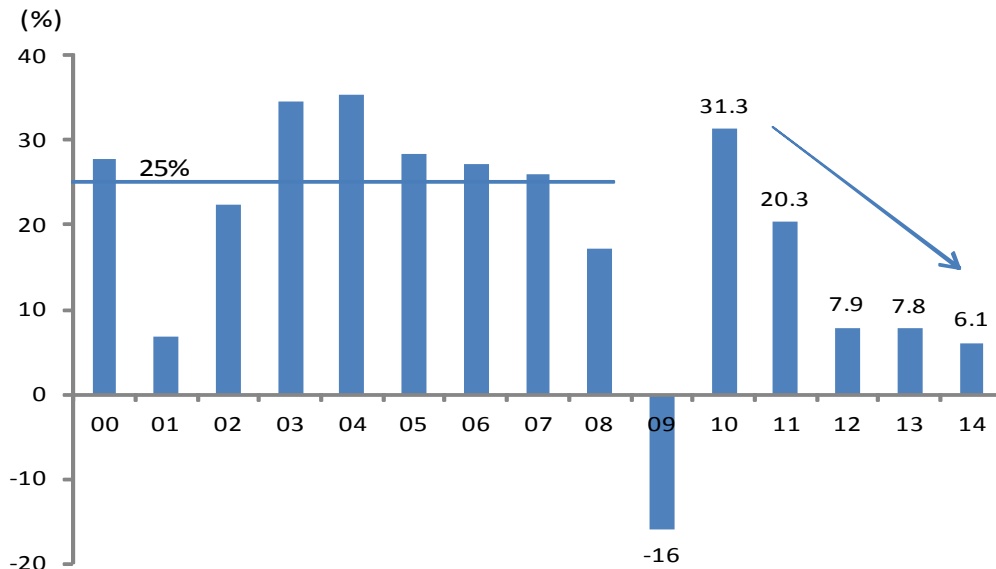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② 수출 둔화

□ 수출도 2000~2008년중 평균 2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최근 크게 둔화

- 2014년중 6.1%로 2012년(7.9%)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도 수출 부진이 지속

[그림2] 수출증감율 추이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③ 금융시장 불안

□ 실물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

- 실물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14년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외환보유액(3조 8,430억달러)은 금년들어 약 2000억달러 감소
- 지난해 후강통 등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로 단기간 급등한 주가도 6월 이후 37.9% 하락
- 중국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8월 11일 5%의 평가절하를 단행

[그림3] 외환보유액 및 환율 추이

[그림6]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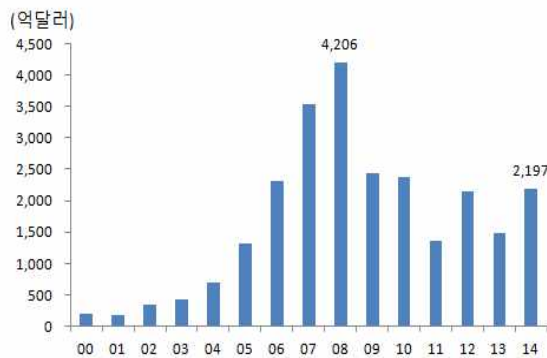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④ 경상수지 흑자 지속 및 물가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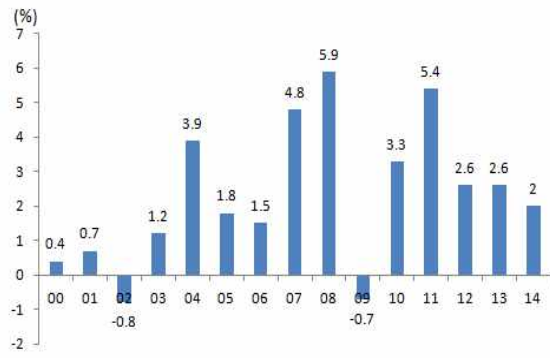
□ 다만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도 안정세 시현

- 경상수지는 2008년 4,206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중 2,197억달러로 여전히 높은 흑자규모를 시현
- 물가도 2011년에는 5.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2%대의 안정세를 기록

[그림5] 경상수지 추이



[그림6] 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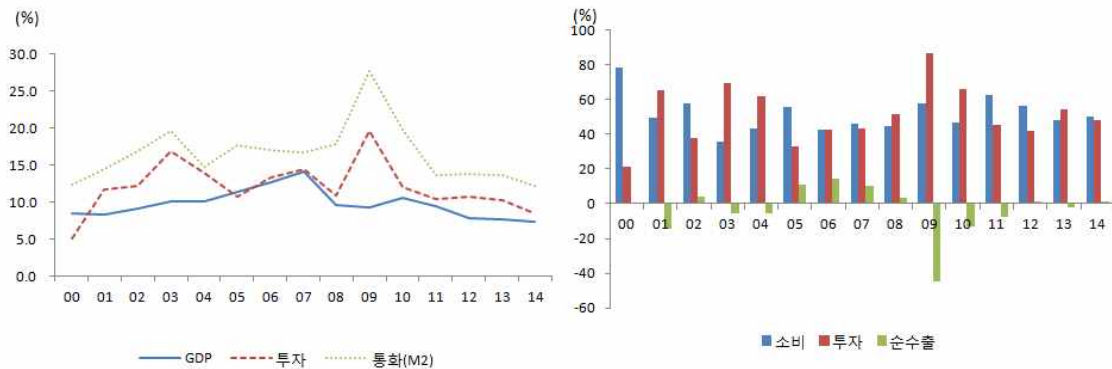


나.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① 정부 및 투자주도 경제성장

- 중국은 과거 일본 및 아시아 4마리 용과 같이 정부주도의 투자중심 성장모델을 추진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 70년대의 일본, 80~90년대의 한국·홍콩·싱가포르·대만과 같이 정부 주도하에 특정 산업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성장 모델을 추진
 -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GDP 대비 투자비중이 40%를 상회하여 투자효율성이 저하하는 가운데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둔화

[그림7] GDP, 투자 및 M2 증가율 추이 [그림8] 지출부문별 GDP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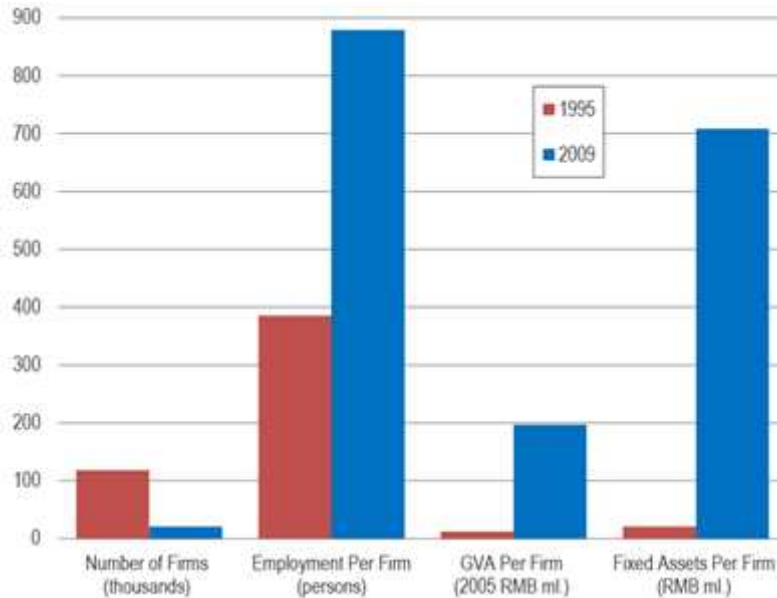


② 경제의 비효율성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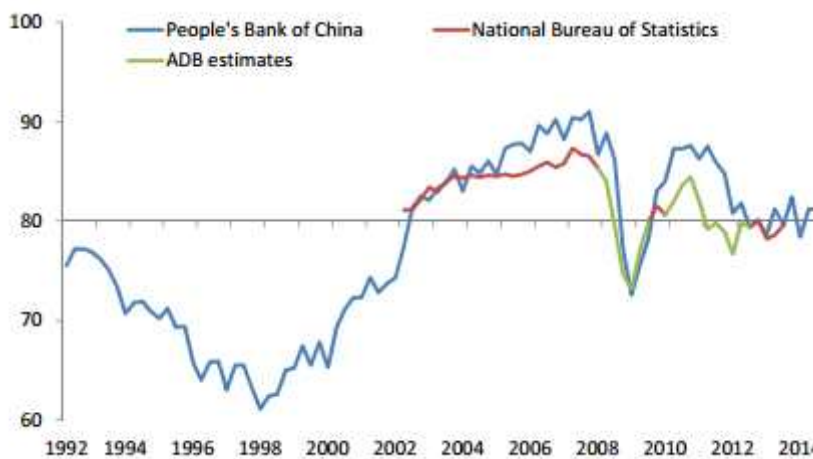
- 정부주도에 의한 국유기업(SOEs, State owned enterprises) 중심의 자원집중,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미비 등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의 고비용 비효율 야기
 - 국유기업은 정부의 직·간접 보증에 의해 파산하지 않음에 따라 도덕적 해이, 구조적 부패 등의 문제 야기
 - 국유기업은 비시장적 방법에 의해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노동, 고정자산 등 경제내의 영향력이 대폭 증가
 -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과잉투자, 과다부채비율, 수익성 저하, 투기성 투자 등의 병폐 초래
 - 국유기업은 사실상 파산하지 않음에 따라 여타 부문에 비해 과도하게 은행자금이 유입되고 잠재적 부실이 높은 것으로 인식

-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실대출률은 1.08%로 표면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은닉부실대출(ever-greening)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부실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그림9] 국유기업 성장 추이



[그림10] 제조업 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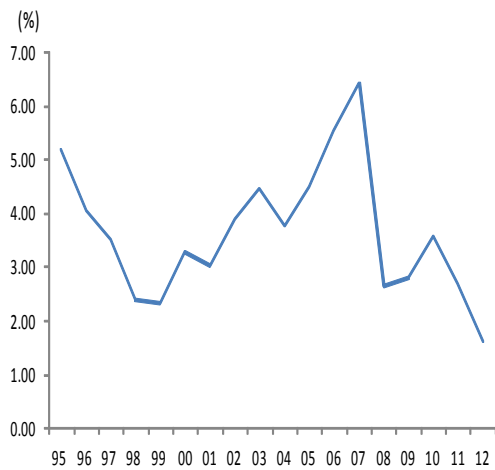
- 자원이 과도하게 국유기업에게 집중됨에 따라 국유기업의 과잉생산 (overcapacity) 능력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기업 부실 야기
- 철강, 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대부분의 제조업 업종에서 과잉투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정점을 보인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대체로 80%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더욱 낮아진 것으로 추정

□ 고비용 저효율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

- 총요소 생산성은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크게 둔화
-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 시장 진입 및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저·중기술 개발 진행
- 추격형 기술개발의 이점이 소멸되면서 독자적인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국유기업 등 기존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고착화로 기술혁신 부재

[그림11] 총요소 생산성 추이



자료: OECD, 2015

[그림12]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The Conference Board, Financial Times, 2015.9.3
재인용

2. 중국의 정책 대응

□ 중국 정부는 기존의 정부주도 및 투자중심(invest-driven) 경제성장에서 시장중시

(market mechanism) 및 혁신중심(innovation-driven)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금융개혁, 제조업 혁신 등의 개혁 정책 추진

- 중국 정부는 2013년 11월 12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3중전회)에서 ‘종합적이고 전면적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The Decision on Major Issues Concerning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Reforms)’ 발표

가. 상해자유무역시험구(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 무역 및 투자관리 방식 혁신과 금융 등 서비스 개방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도약
 -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대외개방의 중요한 부문이며,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루기 위한 경제 글로벌화의 수단으로서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중요성 강조

① 정부의 역할 변화

- 국제화, 법치화 요구에 따라 국제적인 높은 수준의 투자와 무역 규칙 시스템이 서로 부합되는 행정관리 체계를 모색하며, 정부의 관리를 ‘사전 승인’ 중시에서 ‘업무 중점, 사후 관리’ 중시로 전환

② 투자영역의 개방

-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의 개방 확대
 - 투자자자의 자격요건, 지분 제한, 경영범위 제한 등 진입장벽 조치를 완화하고 각종 투자자들이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토대로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내국민 대우를 적용하며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대해 ‘심사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③ 신개념 무역 중심지로서 발전 도모

- 단순한 상품 중개를 넘어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가 거래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신개념 무역 중심지
 -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 본부 설립을 장려하며, 무역·물류·청산 등 기능이 종합화된 운영 센터 수립

- 바이오, 소프트웨어, 경영컨설팅, 데이터서비스 등 아웃소싱 업무 발전 촉진
- 해운 금융, 국제선박 운수, 국제선박 관리, 국제해운 중개 등 국제해운 서비스 능력 제고

④ 금융개방 확대

□ 금융제도 혁신 가속화 및 금융서비스 기능 강화

- 리스크 억제 전제하에 위안화 태환, 금융시장 이자율 시장화, 위안화 국경간 사용 자유화
-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서비스업을 전면 개방

⑤ 법제도 개선

□ 상해자유무역시험구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 및 무역 규범의 제정을 가속화

- 종전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등과는 별도로 서비스업 개방 확대,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 등을 위한 신속한 법률 제정

나. 금융개혁

□ 금리 자유화, 환율결정체계 시장화, 금융시장 완전 개방, 위안화 국제화 등의 단계적 추진

① 금리자유화

□ 대출금리의 경우 2013년 완전자유화 되었으며 예금금리도 자유화 추진

- 2013년 대출금리 하한 폐지로 대출금리는 완전 자유화,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예금금리 상한은 규제*

* 예금금리: 기준금리 상한의 1.1배(2012.6), 1.2배(2014.11), 1.3배(2015.3)

-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는 예금금리 자유화를 2년내(2016년) 단행할 것

이라고 언급(2014.7월 중미전략경제회의)

- 리커창 총리는 중소은행과 민영은행의 발전, 금리 및 환율 자유화, 다양한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강조(2014년 하계 다보스포럼)
- 금리 자유화는 시장원칙에 의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의 가속, 그림자금융의 축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금융업종의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투명화되어 국유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위험성 상존

② 환율제도 개혁

□ 환율제도 개혁*은 시장수급을 기초로 하는 변동환율제도를 바탕으로 환율이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

* 중국은 건국 이후 단일환율제(1949~52년), 고정환율제(1953~72년, 파운드화 페그), 통화바스켓제(1973~80년)를 거쳤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복수환율제(1981~84년, 공정환율과 내부결제환율), 단일환율제(1985~87년), 이중환율제(1988~93년,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관리변동환율제(1994~2005.7, 사실상 고정환율)를 거쳐 현재의 복수통화바스켓 참고 관리변동환율제로 이행

□ 중국 정부는 일중변동폭을 확대하며 꾸준히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을 유지(관리)할 것임을 명시

- 다만 중국경제가 환율 및 수출 등 대외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으로 중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전망

③ 금융시장 개방

□ 중국정부는 은행·보험·증권업의 대외개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 제한 및 업무 차별 등으로 여전히 개방수준이 낮은 상황

- (은행)진입장벽과 업무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대형상업은행 중심의 독과점체제* 지속, 외국계은행에 대한 자본금 규제 및 업무 제한 등으로 공정경쟁 애로

* 2013년말 현재 5개 대형상업은행의 총자산은 65.6조위안으로 은행업 금융기관 전체(151.4조위안)의 43.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은행의 총자산은 2.6조위안으로 전체의 1.7%에 불과

- (증권) 외국자본 진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외국 자본의 중국내 지점

및 독자법인 설립은 금지하고 영업기능이 없는 사무소 설립만을 허용

- (보험) 민간보험회사 설립, 인민보험(PICC)의 구조조정, 외국보험회사의 진출(1992년) 및 영업지역·업무제한 철폐(2004.12) 등으로 경쟁체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나 국유 대형보험회사의 독과점체제에서 여전히 지속
-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은 주요 산업의 질적 발전수준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중장기적(5~10년)으로 실시될 전망

④ 위안화 국제화

-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주변화 → 지역화 → 세계화」의 단계로 위안화 국제화 추진*
 - *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 지역과의 무역거래 결제통화로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주변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 투자통화로서 위안화의 역할을 증대(지역화)한 후, 미달러화, 유로화와 같은 보유통화로서의 지위확보(세계화)를 추구
 - (무역결제통화) 무역결제통화로서 위안화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대상 지역 등 기업 등을 꾸준히 확대
 - (투자통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내 주식·채권 투자, 외국인의 중국내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역외(홍콩)에서의 위안화표시채권 발행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
 - (보유통화) 위안화 국제화의 최종목표인 대외준비자산(reserve assets)으로서의 비축통화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과 통화스왑(currency swap) 협정을 체결
-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자유태환, 자본거래 자유화, 환율결정체계의 시장화 등이 선결될 필요
 - 위안화가 대외준비자산(reserve currency)으로서 국제화가 완성되는 시기는 빠르면 10년, 늦으면 20~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비용 상승, 자원이용 제약, 환경문제 등으로 투자 및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 품질개선 등을 위한 새로운 제조업 발전전략이 필요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30년간을 3단계로 나누어 중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2015.5월)」 추진

○ 1단계(2015~25년) :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

* 중국공업원은 2013.10월 전략연구보고에서 제조강국을 3그룹으로 구분하고 미국을 1그룹에, 독일 및 일본을 2그룹에, 영국, 프랑스 및 한국을 3그룹으로 분류

- 2020년까지 제조업의 IT 경쟁력을 크게 개선하여 주요 업종에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를 실현함으로써 주요 업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

- 2025년까지 혁신능력 및 노동생산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IT와 제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한편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배출량을 세계 선진수준으로 감축

○ 2단계(2025~35년) : 세계 제조강국의 중간수준까지 도달

- 혁신능력과 제조업의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위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

○ 3단계(2035~45년) : 세계 제조강국의 선도적 지위로 도약

- 제조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함은 물론 기술과 산업에서도 선진적인 경쟁력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제조강국으로 도약

□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독일의 「공업 4.0」, 일본의 「산업부흥플랜」,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등과 유사한 중장기 전략방안으로 9대 과제 선정 및 10대 전략산업 집중 육성 계획

○ 9대 과제

- 제조업 혁신력 제고, IT기술과 제조업 융합,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품질향상 및 브랜드 제고, 친환경 제조업 육성, 10대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제조업 구조조정 확대, 서비스형 제조업 및 생산형 서비스업 육성, 제조업 국제화수준 제고

○ 10대 전략산업

- 차세대 IT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한편 제조혁신능력 제고, 스마트 제조, 공업기반 강화, 친환경 제조, 첨단설비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
- ①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구축) 중점산업의 구조조정과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신재료, 바이오 의약 등 핵심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공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조업 혁신센터 설립을 중점 추진
 - 제조업 혁신센터는 산업기초와 핵심기술에 대한 R&D, R&D 성과물의 산업화, 인재개발 등을 수행하며 2020년까지 약 15개, 2025년까지 약 40개를 설립
- ② (스마트 제조업 육성) 핵심 제조공정에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장비를 융합함으로써 정보화와 산업화 융합전략을 통한 스마트 제조업을 육성
 - 제조업 중점분야의 스마트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전면적인 스마트화를 실현함으로써 운영비용 절감, 제품 생산주기 단축은 물론 불량품 발생률을 2020년까지 30%, 2025년까지 50%까지 감소
- ③ (공업 기초역량 강화) 핵심 기초부품(원자재), 선진 기초공법, 핵심 기술재료의 최초 혹은 다분야 응용을 지원
 - 핵심 기초부품과 핵심 기초재료 자체 보급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제고
- ④ (첨단장비의 혁신) 대형항공기, 항공기 엔진, 민간용 우주장비, 스마트 친환경 열차, 에너지 절약형 또는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원전 설비, 고급 의료설비 등 중점분야 장비의 혁신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
 - 2020년까지 첨단장비분야에서 자주적인 R&D와 기술응용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지적재산권 보유비중 및 첨단장비 시장점유율 대폭 확대,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 하락 및 중점분야의 첨단장비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
- ⑤ (친환경 제조업 육성) 전통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청정제조, 수자원 절약과 오염관리, 순환이용 등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자원의 종합적 이용, 리사이클링 제조 및 저탄소 산업화를 추진
 - 2020년까지 친환경 제조시범공장 1,000개와 시범지구 100개를 건설하여 중점 제조업의 오염배출량을 20% 감축시키고 2025년까지 제조업의 녹색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조시스템 구축

3. 전환기의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가. 중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망

- 최근 중국 정부의 개혁 및 부패척결 추진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을 한단계 도약 시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관적 시각이 혼재
 - 상해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투자 및 무역 규범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위안화 국제화 및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 시험적인 무대로서의 역할 수행
 - 기업의 과다부채와 국유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자본유출 등으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 확대 등 의미있는 금융개혁이 단기간내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형식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신고나 등록과정에서 무형의 규제가 존속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
- 한편 중국의 개혁 정책은 그 성과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혁 및 부패척결 추진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생산성 및 소득이 증대되어 고품질 소비재를 중심으로하는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 개혁 정책이 실패할 경우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우리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농후

나. 한국의 대응

① 제조업의 고기술 전략 추진

- 중국 제조업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 과잉생산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주요 수출 주력 업종의 경우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주요 제조업 저부가치 제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거의 불가능
- 고품질화 및 사업구조 개편
 -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부가치 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사업구조도 개편할 필요

-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획일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생산 방식으로, 일반강판중심에서 자동차강판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
- 국제 경쟁력이 열위한 부문의 경우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

② 철저한 현지화 노력

- 장기적인 투자 전략 및 유능한 현지직원 채용을 통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 추진
 - 아모레퍼시픽*, 미래에셋 등 현지화에 일정부분 성공한 기업의 경우 국내 경영진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 * 최근 10년간 아모레퍼시픽 차이나 매출액은 47%의 평균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중국 시장 매출액은 약 3,387억원을 기록
 - ** 2013년 QP라이센스를 받아 상해 미래에셋법인을 설립하고 기관을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수행, 현재 약 3억 7천만달러 AUM을 자문하고 있으며 중국투자자와 룩셈부르크에 근거를 둔 SICAV펀드(약 6천에서 7천억달러로 27개국에서 자금조달)를 중개 노력
 - 아모레퍼시픽은 현지 법인장으로 중국인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여 상당한 권한을 부여

③ 중국 기업환경 정보집적 및 중소·중견기업앞에 제공

-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Raycop의 경우 하이엔드 침구 진공청소기 생산업체로 대부분 해외(일본 80%, 나머지 중국 등)에 수출
 - 특히, 중국의 경우 상위 5% 소비층을 겨냥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
-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령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
 - 중국의 기업에 대한 법적규제가 지속적으로 바뀔에 따라 사업을 위해서는 노동법, 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 한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및 사업정보를 지원해 줄

필요

- 중국에 독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터넷 검색 등을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대체로 부정확

<부록 1: 인터뷰 요약>

1.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2. 아모레퍼시픽
3. 대우인터네셔널
4. KDI-SASS 정책세미나
 - ①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Crises: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s
 - ② Global Value Chain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Economy
5. 오로샤/B.I.G 인터뷰
6. Raycop
7. 상해 미래에셋법인

1. 상해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1. 개요

- 일 시 : 8. 26(수)
- Interviewee : Huang Jianfeng, Zheng Haiiao (China Pilot Free Trade Zone Administration)
- Interviewer : 전홍택 대학원원장, 이진수 교수, 남창우 부연구위원, 구자현 부연구위원, 정성훈 부연구위원, 김민호 부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원

2. 인터뷰내용

- 중국 새 지도부의 경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상해 파일럿 자유무역지대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가 설립됨
 - 2013년 9월 29일 공식 설립
-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개혁을 목표로 함¹⁾
 1. 금융 개혁
 - 위안화 국제화, 자본 시장 개방, 예금리 시장화, 외화 거래 자유화 등 금융 시장 개방과 금리, 환율의 시장화
 2. 세관 통관 선진화
 - 싱가포르를 benchmark하여 세관 통관의 단일 창구화.
 - 인터넷을 활용한 서류 절차의 간소화
 3. 서비스 시장 개방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 단순화
 - 국가 안보, 반독점 관련한 산업들 위주의 negative list 제도화. negative list 에 등록된 산업을 제외, 사전 심사 없이 등록 후 사후 관리 체제로 변화.

1)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에 대한 개략적인 개혁 내용은 sh_pftz_paper_nov2014.pdf 에 수록되어있음.

- 업종 별 진입 장벽 제거
- 4. 사업을 위한 제도 개혁, 세금 제도 개편
- 외자 기업 보호, 법률로 제정
- 시장 관리 감독 강화 사회적 신용을 높임.

3.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의 Pilot 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음
 - 개혁개방의 새로운 돌파구로서의 역할
 - Global 투자, 무역 규범에 맞춰가려는 의지
 - 위안화의 국제화,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준비하기 위해 시험적인 무대로서의 역할
-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이후의 중국 경제 변화 방향 가늠
 - 기존 Free Trade Zone(SEZ: Special Economic Zone)이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가공무역 생산기지 등 경제성장의 기점으로서 역할을 하였음.
 -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시발 점으로 다른 지역(선), 중국 전역(면)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 또한 단기간내에 자유무역구를 본 궤도에 올려 2-3년후 시범을 명칭에서 빼겠다는 적극적 의지 상징
 - 반면 Pilot Free Trade Zone 은 60개 제도 개혁 시도를 통해 뉴 노멀 시대 진입 선언과 함께 이에 대비하는 제도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
 - Pilot 으로 이루어진 개혁이 수년 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점에서 바로 면으로)
 - 자본시장 개방 등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비할 필요

□ 한국 Free Trade Zone 정책에의 시사점

- Pilot Free Trade Zone 은 외국 투자와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토지 사용 혜택 등의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전반적 특혜 정책을 이용하기 보다 수출 부가가치세 감면,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세제혜택 등 내국민대우에 의한 기업 투자 지원 정책을 마련
- 한국 Free Trade Zone 의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

2. 아모레퍼시픽

1. 개요

- 일 시 : '15. 8. 26(화)
- Interviewer : 전홍택, 이진수, 남창우, 구자현, 정성훈, 김민호, 김수진
- Interviewee : 손경진 팀장

2. 면담 내용

- 중국화장품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 중국 화장품 시장은 '14년 약 30.4조원 규모를 달성, 최근 성장 속도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임.
 - 중국 화장품 시장은 '기초' 및 'Mass' 중심의 시장이며, 최근 소비자의 니즈가 진화되면서 립, 마스크 등의 카테고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추세
 - 화장품 소비의 중점 채널이 대형유통(백화점, 마트 등)에서 온라인, 쇼핑몰, 로드숍(FSS)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온라인 시장 또한 점차 체계화 되고 있음.
 - 글로벌 Top Player 들은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Local Player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아모레퍼시픽 그룹 개요
 - 아모레퍼시픽은 70년의 역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No. 1 뷰티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만 여명의 글로벌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30여 브랜드를 중심으로 '13년 기준 약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함.
 -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아에서는 92년 중국을 시장으로 홍콩, 아세안 등에 진출, 세계 향수 시장의 본거지인 프랑스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도 각각 '97년

과 '03년에 진출함.

- 특히 중국은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사업의 핵심 국가로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이 제일 큰 국가임.
- 아모레퍼시픽 중장기 비전은 매출을 현재 4조원 대에서 '20년 12조원으로 성장하는 것이며, 한국 사업의 비중은 현재 80%에서 50% 미만으로 내려가고, 중국은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1992년 중국 심양에서 중국 분공사를 설립,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0년 아모레퍼시픽 중국 본부를 상하이에 설립, 2002년 라네즈 브랜드 공식 런칭으로 중국 사업 발전의 막을 올렸음.
- 최근 10년간 아모레퍼시픽 차이나 매출액은 47%의 평균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중국 시장 매출액은 약 3,387억원을 기록
- 아모레퍼시픽 중국 사업의 핵심전략은 “현지화”이며 중국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각종 연구조사 결과를 제품 및 시장 개발에 적용하고 있음.
- 2014년 10월, 아모레 상해 뷰티캠퍼스 준공로 그룹 생산, 연구개발 및 물류의 역량을 통합하고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국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우수품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현재 1,211개의 중국 백화점 매장을 통해 전국적인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3,314개의 오프라인 Point of Sales를 보유하고 있음.
-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내 Top 4 Beauty Company의 2020 비전 달성을 위해 브랜드 지속 성장,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디지털에 대한 선제 대응, 조직강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 그리고 손익관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3. 대우인터네셔널

1. 개요

- 일 시 : 8. 26(수)
- Interviewee : 김대웅, 곽상용, 황세준 (Daewoo International, Vice General Manager)
- Interviewer : 전홍택 대학원원장, 이진수 교수, 남창우 부연구위원, 구자현 부연구위원, 정성훈 부연구위원, 김민호 부연구위원, 김수진 연구원

2. 인터뷰내용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진행됨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종합무역상사인 대우인터네셔널의 사업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있음.
 - 초기 한국의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중국 기업들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주였으나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제품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을 이루게 됨.
 - 현재 중국 내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의 수요로 자동차 강판 등을 일부 수출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수출은 급속도로 줄어들음.
 - 철강, 석유화학, 조선, 비철금속 등 중국의 설비증강과 지연된 구조조정은 동 분야의 생산과잉 현상으로 나타남.
 - 동 분야(저기술 저부가가치) 한국제품의 중국 시장 입지 여력이 사라졌음.
- 중국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짐.
 - 한국은 중국과 기술면에서 선진국인 일본, 독일과의 사이에 위치함.
 -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에서 설계한 설비로 제품 생산. 생산되는 제품 질이 비슷함. 가격면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정도.
 - 고품질 제품에서도 최근 일본의 엔저로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 있는 상황.
 -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기술 우위는 수년 내 없어질 것임.

□ 중국의 내수화가 진행 중임

- 국영기업들은 중간재를 중국산을 사용할 것을 권고
-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중간재에 부여하던 관세혜택도 없애거나 줄이고 있음
 -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타격을 입을 위험

3.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

□ 한국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이 필요

- 고품질화를 통해 경쟁력을 잃지 말아야함.
 - 포스코의 경우 획일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맞추어 생산하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 전환 노력 중.
- 사업구조의 변화도 필요함
 - 세계 1위 철강회사 Arcelor Mittal 의 경우 유럽 시장과 중국 포함 아시아 시장을 분리하여 운영. 유럽 내 수요를 충족하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전략과 아시아 시장을 따로 분리하여 각 시장의 기회나 위험이 분산되도록 함과 동시에 각 시장 대응의 유연성 제고.
- 중국 산업의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은 산업에서 기업의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

4. KDI-SASS 정책세미나

①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Crises: Lessons from Korean Experiences

I. 개요

- 한국은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나 2008~2009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한 바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요인과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II. 한국의 외환위기와 정책적 대응 (1997~1998년)

-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내·외부 요구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자본자유화를 추진
 - 1992년 외국인의 한국주식시장에의 직접투자 허용
 - 투자한도는 외국인 개별 투자자당 해당 기업주식의 3%, 외국인 투자자 전체로 해당 기업주식의 10%임
 - 1993년 금융부문 대외개방 계획 발표
 - 1994년 OECD 가입을 계기로 종합적인 자본계정 자유화 조치 도입
- 1994년 상업은행의 중장기 차입한도는 유지하면서 외화단기차입이 자유화되어 은행부문의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
 - 1992년말 총 단기외채 243억달러 중 금융부문 단기외채는 113억달러(46.5%)였으나 1996년말에는 총 단기외채 610억달러 중 금융부문 단기외채가 390억달러(63.9%)에 달함
- 한편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등에서 조달하는 외화자금은 비거주자의 외화조달이라는 점에서 외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유사시 본점으로부터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외화유동성 관리에 포함되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규모는 급격히 증가
 - 금융기관 해외지점 등의 단기차입 잔액은 1992년말 185억달러에서 1996년말 390억달러로 증가

-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외채 및 금융기관 해외지점 등에서의 단기차입 규모가 외환보유액 규모를 크게 상회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구조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취약하게 됨
 - 1992년말 단기외채 185억달러, 외환보유액 171억달러로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108.2%이었는데 1996년말에는 단기외채 610억달러, 외환보유액 332억달러로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이 183.7%로 증가
 - 금융부문의 경우 1992년말 단기외채 113억달러, 해외지점 등의 차입잔액 185억달러로 총 차입잔액이 298억달러(외환보유액 대비 174.3%)였는데 1996년말에는 단기외채 392억달러, 해외지점 등의 차입잔액 390억달러로 총 차입잔액이 782억달러(외환보유액 대비 200.5%)로 크게 증가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출증가가 둔화되는 가운데 1997년 삼보, 기아 등 대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 만기재연장(roll-over)이 점차 어려워지게 됨
- 외국투자자들의 한국시장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에 직면한 정책당국은 환율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환율 상승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대규모로 미달러화를 매도하였고 이는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게 됨
 - 한국은행은 1997년 6월~11월중 현물환 시장에서 122억달러, 선물환 시장에서 70억달러를 매도
 - 가용외환보유액 규모는 1997년 11월말 7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
 - 원/달러 환율은 1997년 10월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진 11월 이후 급격히 상승
-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악화되고 외국투자자들의 한국시장 이탈도 지속되는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상승 압력에 대처할 수 없게 된 한국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공식적인 금융지원을 요청

III.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 (2008~2009년)

- 2008~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 한국은 대규모 자본유출을 경험

- 레만브라더스 사태 직후 자본유출이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2008년 4/4 분기의 경우 순자본유출 규모는 426억달러에 달함
- 그러나 한국의 정책당국은 이러한 해외자금 유출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
 - 2007년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618억달러로 단기외채의 1.6배에 달하는 규모
- 한국의 정책당국은 충분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미연준과의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기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공조체제 구축
 - 한국의 정책당국은 2008년 10월~2009년 2월 중 550억달러를 금융기관에 공급 (무역신용 210억달러, 유동성공급 340억달러)
 - 국내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1,000억달러에 대해 향후 3년간 지급보증(2008년 10월 발표)
 - 한국은행과 미연준간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2008년 10월)
- 한편 한국의 정책당국은 1997년과 달리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을 일정 정도 용인
- 한국은행과 미연준간 통화스왑 체결 이후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스프레드가 체결 이전 600bp 수준에서 체결 이후 400bp 수준으로 크게 감소
- 이러한 정책적인 대응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증가하면서 2009년 초 이후 외환시장에 대한 압력이 약화됨

IV. 정책적 시사점

- 자본자유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정책 체계 수립 필요
 - 1997~1998년의 경우 자본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정책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위기 방지대책 및 대처가 미흡
 - 예컨대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등에서 조달하는 외화자금이 외채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외환시장에의 압력요인이 주로 외부에 있어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당국은 외환매도에 의한 시장개입에 신중할 필요
 - 1997~1998년의 경우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외환 시장에 개입했던 반면 2008~2009년의 경우에는 외환시장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을 일정 정도 용인
- 유사시 외화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외환보유액 보유 필요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경화(hard currency)를 보유한 국가와의 국제적인 공조체제 구축 필요

4. KDI-SASS 정책세미나

② Global Value Chain and Implications on the Korean Economy

1. 개요

- 일 시 : 8. 25(화)
- 발표 및 토론: 정성훈 부연구위원

2. 발표내용

- 한국의 GVC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문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수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 한국 전체 수출의 1/4이 중국. 중국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의 목소리가 큼.
 - 수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 즉, 경제성장에 미치는 수출의 영향력 감소 추세. 새로운 성장전략을 만들 필요성 증대
 - GVC는 생산활동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부가가치 관점에서 경제활동을 확인하려는 노력
 -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았을 때 총수출 비중과 차이가 많이 남. 서비스업이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줌.
 - GVC 참여가 국내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 offshoring을 통해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충분히 증가하는 경우
 - 다른 나라의 가치사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중간재 공급을 늘리는 경우
 - 한국의 경우 후자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성장을 대부분 주도해 옴.
 - 정책적 시사점
 - 수출 규모에 너무 집중해왔던 관행에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고 있느냐(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

- Offshoring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매 네트워크, 정보, 컨설팅 등 미시적인 정책 제공이 필요함.
- 생산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인책 제공이 필요.

3. 토론

- China Inside, 즉 중간재 생산을 중국 내에서 하여 중간재 시장을 내수화하려는 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수준이 궁금함.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마켓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임.
 - China Inside의 실체는 뚜렷하지 않음. 오히려 중국의 중간재 품질이 격상됨에 따라 중간재의 내수화가 내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중국은 현재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중국이 GVC 내에서 고도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떻게 고도화를 이뤄냈는지 궁금함.
 - 한국이 GVC 내에서 고도화를 이뤄낸 것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움.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 향후 한국과 중국이 joint R&D 등을 통해 서로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양국 모두가 GVC 내에서의 고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함.

5. 오로사 / B.I.G 인터뷰

1. 개요

- 일 시 : 8. 26(수)
- Interviewee : 박영균 오로사 대표, 이동한 B.I.G. 대표
- Interviewer : 정성훈 부연구위원

2. 인터뷰내용

오로사

- 오로사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근무하던 주재원이 독립하여 설립한 업체로써 주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중국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의 역직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를 대표하는 상품 중 하나가 화장품.
 - 중국 정부에서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로 관광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지자, 중국내 보세창고를 개설하고 해외 상품을 관세 없이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중국 전역에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이로 인해 역직구 시장은 매우 활성화되는 추세. 향후 중국이 관세 대신 보세창고로부터 유통되는 물품에 소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화장품 이외에 산업들은 현재 중국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제조에서의 상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유통전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

B.I.G.

- B.I.G는 중개무역을 하는 업체로 한국 기업과 물품생산 계약을 맺은 후 중국의 제조업체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주업무
 - 따라서 현재 한국 업체들이 중국시장 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
 - 그러나, B.I.G에서도 향후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고 지금까지와의 사업형태와 정반대로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한국 제조업체를 통해 물품을 생산한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구상중

6. Raycop

1. 개요

- 일 시 : 8. 26(수) 오후 7시
- Interviewee : Jason Cho, Raycop Vice General Manager

2. 인터뷰내용

- 상해 Raycop현황
 - Raycop은 침구류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생산하는 중견업체로서 2014년 중국에 지점을 설립한 상황
 - 연매출 1,800억원 규모로 하이엔드 침구진공청소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해외(일본 80%, 나머지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중국의 경우 상위 5% 소비층을 겨냥하여 marketing을 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은 상황
- 중국사업의 어려움
 - 중국 현지 노동력은 규정된 업무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
 - 국내 기업은 중국 현지 노동력을 관리하는데 현지 노동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하지만, 일정부분 합리적인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IT산업의 노동력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령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필요
 - 중국의 기업에 대한 법적규제가 지속적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을 위해서는 노동법, 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 한국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및 사업정보를 지원해 줄 필요

7. 상해 미래에셋법인

1. 개요

- 일 시 : 8. 27(목) 오전 10시
- Interviewee : 신형관 상해미래에셋대표

2. 인터뷰내용

- 상해 미래에셋현황
 - 2013년 QP라이센스를 받아 상해 미래에셋법인을 설립하고 기관을 상대로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고 있음
 - 중국법상 독립된 경영권을 가지지 못함에 조인트벤처기업과 공동투자형태를 취함
 - * 다른 한국금융기관은 법인보다는 지점형식이나 outsourcing을 통해 marketing만 하고 있는 상황
 - 현재 약 3억 7천만달러 AUM을 자문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투자자와 룩셈부르크에 근거를 둔 SICAV펀드(약 6천에서 7천억달러로 27개국에서 자금조달)를 중개하려고 하는 상황
- 중국 자본시장상황 및 규제상황
 - 현재 자본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
 - 현재 중국자본시장에는 상위 2천5백여개 상장기업과 B레벨 자본시장에 상당히 많은 상장기업이 존재
 - 하지만 기업재무자료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성향은 여전한
 - 기업실사를 직접하지 않는 이상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실정
 -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의 비중은 90% 정도에 이룸, 특히 하루에 한번만 주식을 사거나 팔수 있음에도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400조원 규모
 - 주식가격측면에서는 일반적인 asset pricing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

재: 현재 주식가격에 거품이 존재할 가능성

○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내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 금융기관 경영권에 대해서도 은행은 20%미만, 신탁사는 19.9%, 증권사 33%, 자산운용사 49%, 보험사 50% (보험의 경우 영업행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존재)만 투자할 수 있음

□ 중국기업의 현황

○ 기존에 낮은 임금의 노동력으로 기업이윤을 창출하였으나, 시진핑집권 이후 임금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기업의 이윤율이 저하되고 부채가 상승하는 상황

- 현재 기업의 부채비율은 GDP대비 약 160%로 임금상승의 부담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
- 최근에는 4대보장기금에 따라 최저임금의 53%가 추가로 상승한 상황
- 중국정부는 기업부채율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유상증자 및 자금조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 IT 및 mobile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자금이 생산성 높은 기업에게 분배되어야 함
- 지방정부를 포함한 대형 국영기업의 경우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도 거센 상황

○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현지화 전략이 필요

- 국내기업의 중국현지화전략은 중장기전략으로 top management의 의지가 중요
- 특히, 중국현지와 본사를 연결할 현지화된 한국인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

3. 중국에 대한 시사점

□ 시진핑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개혁운동의 성공여부에 따라 중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 시진핑정권의 개혁 및 정상화 운동이 성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생산성 및 내수시장의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시진핑정권이 개혁에 실패할 경우 자칫 중남미의 전처를 따라갈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한국 정부 및 경제주체는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할 필요
- 경제분배 및 반부패운동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기득권층의 자본유출 등으로 현재 RMB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본자유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부록 2: 상해사회과학원(SASS) 양해각서 체결>

1. 상해사회과학원(SASS) 양해각서 체결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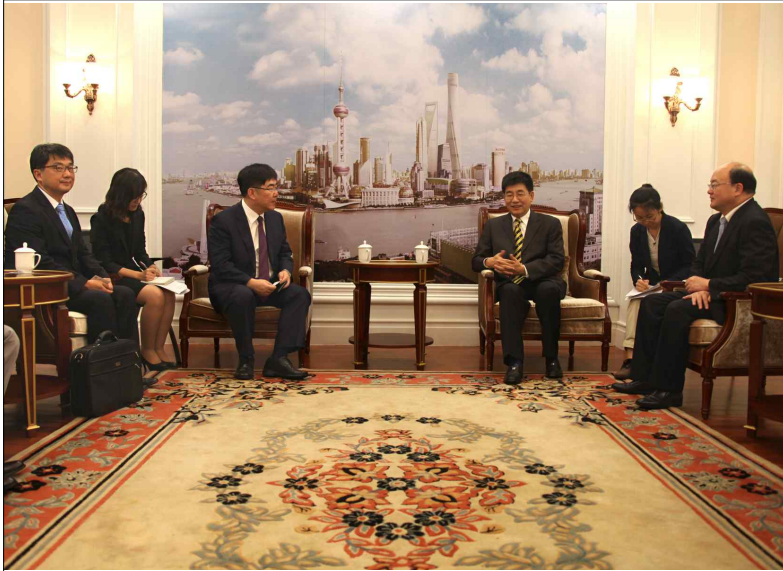
- 일 시 : '15. 8. 25(화)
- 행사명 : 상해사회과학원(SASS)-한국개발연구원(KDI) 간 양해각서 체결식
- SASS 참석자 : Yu Xinhui, Wang Zhen, Yao Qinhua, Xu Mingqi, Jin Fang, Zhou Yu, Shen Yuliang, Sun Lixing, Wu Xueming, Liu Aming
- KDI 참석자 : 전홍택, 이진수, 남창우, 구자현, 정성훈, 김민호, 김수진

2. 행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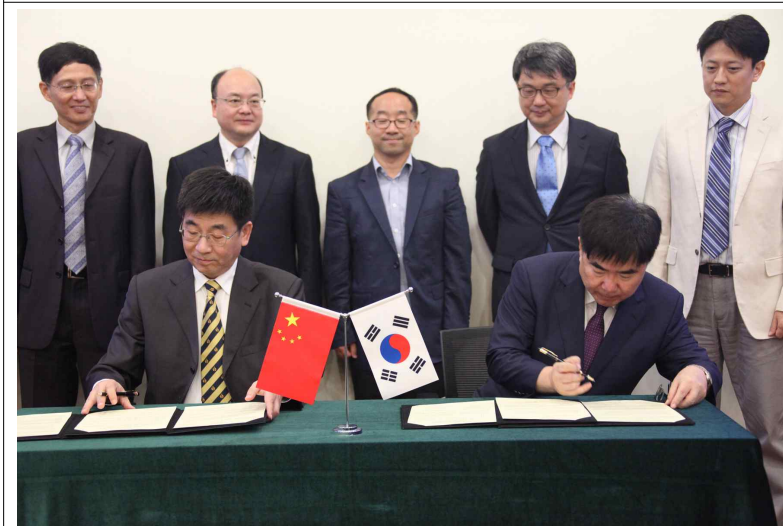
- KDI와 상해사회과학원 간의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양해각서 체결
 - 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 체결
 - 공동 컨퍼런스 개최 (주제: 국제경제정책, 아시아 경제협력, 한중 간의 무역)
 - 방원, 세미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
 - 연구진의 단기 파견 및 연구 참여 기회 확대
 - 지난 2004년도에 양 기관 간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교류협력 네트워크가 이어지지 않았음. 이번 MoU 서명식을 통해 기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찾기로 양 기관 협의함.
- Yu Xinhui 상해사회과학원 당서기는 환영사를 통해
 - 양해각서 갱신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양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었다고 언급
 - 상호이익이 되는 다양한 연구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다뤄질 글로벌가치사슬, 금융 및 무역에 대한 논의를 기대함.

- KDI의 연구수월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 펜실베니아大 TTCSP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전 세계 순위 9위, 아시아 순위 1위에 랭크되는 등, 그 연구 수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특히 국제경제정책, 국내 경제정책 분야가 눈에 띄는 연구 분야임.
 - 상해사회과학원도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싱크탱크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투입할 예정
- 양 기관 간에 다양한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극대화하여 상호보완, 상호 호혜적인 증진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
 - 세계경제정책,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FTA 문제 등 다양한 공동의 관심 연구 분야가 존재하며, 국가별 정책 권고 및 전략적 선택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이번 정책세미나도 이와 같은 공동의 관심연구 분야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간의 노력을 요청 드림.
-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답사를 통해
 - 상해사회과학원의 중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에 대한 언급
 - 상해사회과학원은 1958년 설립되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베이징사회과학원 다음으로 가장 큰 인문·사회연구원임.
 - 중국의 사회 및 경제 전환에 따른 여러 중요 문제에 대한 이론 및 실증연구를 수행, 중국 개혁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함.
 - KDI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대한 소개 및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소개
 - KDI는 1971년 설립, 경제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음.
 - KDI국제정책대학에서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Graduate School of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에서도 같은 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
 - KDI와 SASS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싱크탱크의 연구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사회 이해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음.

3. 행사 사진



사전 환담



양해각서 체결식

4. 양해각서 서명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INA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The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with the aim of broadening and deepening their mutual academic relations and cooperation, and of promoting coordinated research on topics of mutual interest, have reached the follow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benefit.

Article 1

The Institutions will undertake, within available resources,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academic reg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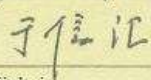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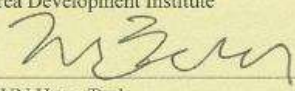
1. to co-organize joint events or activities including workshops, conferences or forums, in which members of both institutions can engage in the joint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2. to encourage working programs for research exchange, and to encourage visits from one Institution to the other by members of the academic staff for the purpose of participating in each other's seminars or research programs; to strengthen the exchange of academic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3. to exchange selected scholars from the partner institution for short study and research visits, funded by the sending Academy, with an aim to promote closer research exchange and greater understanding.

Article 2

The specific academic exchange programs, division of work in cooperation, funding terms, procedures, quality supervision requirements, information disclosure and other provisions shall be separately execut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Academies hereto under joint consultation and agreement via written letters, which shall take affect upon affixed signatures and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ttachments. Any attachment, generated on the basi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a part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rticle 3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will be effective for two years. Unless either side has given six months' notice of its wish to amend or cancel it,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automatically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two years from that dat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written in Chinese, Korean and English, and all shall be regarded as official and accorded equal status.

<p>On behalf of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p> <p style="text-align: center;"></p> <hr/> <p>YU Xinhui Secretary of the CPC SASS Committee,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Date: 25 August 2015</p>	<p>On behalf of Korea Development Institute</p> <p style="text-align: center;"></p> <hr/> <p>CHUN Hong Tack Dean,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Date: 25 August 2015</p>
---	--